

## 미국인 10명 중 4명 “중국을 적”



▲ 미국 성인의 81%는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보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인 5명 중 4명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고, 5명 중 2명은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조사기간 4월 1~7일·미국 성인 3600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의 81%가 중국을 '비호의적(unfavorable)'으로, 43%는 '매우 비호의적(very unfavorable)'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2017년 47%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조사에선 역대 최고인 83%가 나오기도 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비호의적' 응답률이 81%로 다소 낮아졌지만, 표본오차(±2.1%포인트)를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 '호의적(favorable)' 견해를 가진 미국인 비율은 2006년과 2011년 52%를 기록했으나, 최근 들어 2021년 21%→2022년 16%→2023년 14%→올해 16%의 추이를 보였다.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본다는 응답 비율은 42%로, 2021년 이 질문이 조사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였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성인 49%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 제한'을 미국 장기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42%는 '어느 정도 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 중장년층 소비 활발... 금리 인하시기 늦춰

미국 중장년층들의 구매력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물가가 높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0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전날 미국 중장년층의 소비, 특히 서비스업 지출이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시기를 늦추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장년층들은 여행과 헬스케어, 오락같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증시와 주택 가격 상승 덕에 최근 수년간 소비력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한 부유한 은퇴 노년층은 높은 금리로 인한 타격을 적게 받은 반면 젊은층들은 집값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집 장만이 어려워졌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부유한 가계들의 순자산이 키워왔다. S&P500지수는 지난 5년간 약 72%, 주택가격은 코로나 19 대유행 발생 이전인 2018년말부터 지난해까지 53%



▲ 비행기에 내린 여행객들이 공항 수화물대에서 가방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급등했다.

부유층들의 자산은 2010년 이후 매년 5.5%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에는 약 9%로 증가폭이 넓어졌다. 증시와 집값 상승으로 생기는 '부의 효과'는 미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 하락을 막아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더 끈질기게 이어지게 만들어 금리를 내리려는 연준의 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다.

## 마리화나 타이레놀급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시동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리화나(대마)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헤로인, 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미드(LSD)와 같은 1군 약물에서 제외하고, 타이레놀 등 해열제와 같은 3군 약물로 낮추는 마리화나 재분류안을 권고했다.

DEA의 권고가 백악관의 승인과 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마는 신체·정신적 의존도가 낮은 약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재분류가 이뤄져도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미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불법이지만, 새 약물 규정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주에서 대마초 소지와 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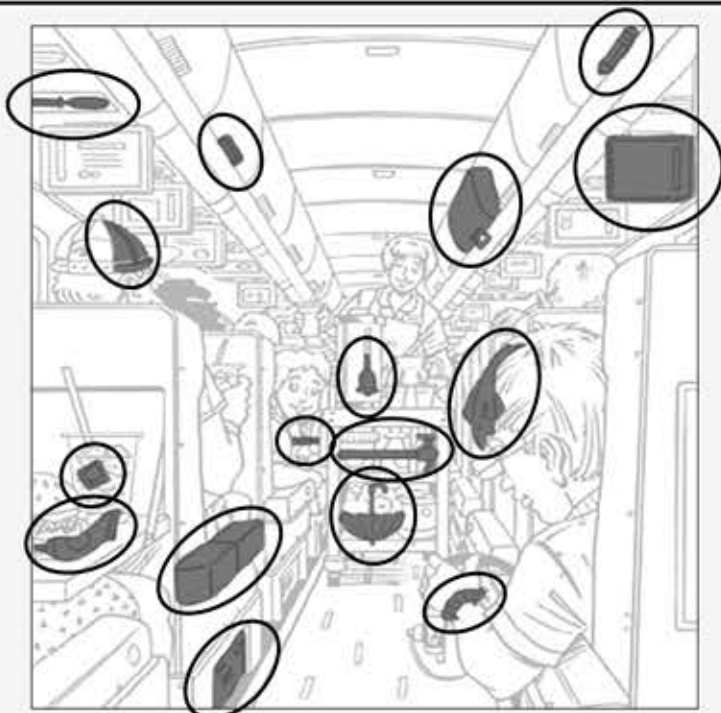
▲ 워싱턴주 알링턴에 있는 마리화나 판매업소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현재 워싱턴 DC를 비롯한 24개 주에서는 기호용으로, 39개 주에서는 의약용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이번 정책 전환은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 층 득표 전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마리화나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비백인이 정책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뇌 발달을 저하시켜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성공을 향한 여정, KIM & CHOI 회계법인과 시작하세요!

지난 40년간 가든그로브에서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세무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수행하며 함께 이민사회의 발전과 역사에 동참해온 이광연 회계법인이 KIM & CHOI 회계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CCOUNTING	TAX	CONSULTING
회계업무 급여 관련 예산/재무 계획 각종 세금 관련	개인/회사 세무 (타주포함) 인컴텍스/ 자산계획/관리 IRS, FTB, CDTFA, EDD 세무 회계 감사 해외자산 FBAR-Report	회사 설립 사업 운영 전략 재무/회계 상담 사업 가치 산정 각종 거래 관련



**Yongsuk (Bob) Kim, CPA**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Member of Gatto McPerson, CPAs, 25 yrs.

**Sue Choi**  
-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 Antonios K. Lee, CPA, P.C., 12 yrs.

T. (714) 539-6444 | 9828 Garden Grove Bl. #213  
F. (714) 539-9261 | Garden Grove, CA 92844  
email: info@kimchoicpas.com